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9일 총 5매		
담당 부서	토지정보과	담 당 자	• 지적재조사팀장 송연수 ☎440-4551 • 담당자 문원기 ☎440-455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국고보조금 11억 원 확보
- 인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실적 4년째 전국 1위 -
-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 비대면비접촉(Untact) 조사 적극 도입 -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인천광역시 2030년까지 2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비 11억 원을 확보, 18개 지구(4,852필지, 6,376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10개 군·구와의 협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기대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준비하는 등 비대면(Untact) 조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지적은 정밀도가 높아 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된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인천형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지양되는 만큼 시민들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는 4년 연속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적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사진>

- <참고자료>
1.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2.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사진 **지적재조사 측량**



참고 1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지적도면의 오차로 인해 **실제 경계와 불일치 하는 지적불부합 발생**
 - * (지적불부합지) 인천 전체 66만 필지 중 6.6만 필지(10%) 해당
- 지적불부합으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초래**

□ **사업개요**

- (기간/사업비) 2012~2030년까지 중장기 추진 / 인천 260억 원 예정
- (사업내용) 지적불부합지 정리 6.6만 필지를 포함한 인천 전체 66만 필지를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지적 구현

□ **그간 추진사항**

- '12. 3. 17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 '21년까지 지적불부합지 66,576필지 중 26,679필지(40%) 완료

구분	합계	'12년~'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예산 (백만 원)	6,372	2,546	524	412	387	858	1,645
사업추진 (필지)	26,679	12,149	2,609	1,978	1,963	3,313	4,667

□ **`22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10개 군·구/ 18개 지구 / 4,852필지/ 6,376㎡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필지수	4,852	734	78	276	157	400	205	755	282	1480	485
예산 (백만원)	1,114	184	8	72	41	105	53	192	74	289	96

□ 지적재조사 무엇이 좋아 지나요?

- 현재 이용하는 현황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합니다.

